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20일~2월 21일까지 무기명 선불카드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남원시는 내수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안정지원금은 총 230억 원이 7만6,801명의 시민에게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자는 2024. 12. 31.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제외되며,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전체에 대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2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세대주 출생년도 할지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5부제(요일제)로 운영된다.

지급된 카드는 6월 30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제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 매진

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갖고 추진방향 등 공유

순창군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을 견고히 다지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군은 14일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의 주재로 부군수, 전 실과소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군정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총 249건의 부서별 중점추진 사업과 신규사업 추진방향을 전반적으로 공유하며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행정성과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 업무보고에 앞서 "민선 8기 후반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군민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14일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의 주재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부서장들은 올해 핵심 전략사업으로 △전원마을 500호 본격 조성 △경천·양지현 수변종합개발사업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등 정주민구 유입을 위한 기반구축 마련에 주력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적 공설 추모공원 조성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의결

을 도모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농민기본소득 확대 △아동행복수당 지원 확대 △사망자 장제비 지원 △임신지원금 지급 △청년유입 및 안정적 정착지원사업 등의 보편적 복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올해 개최 예정인 △제20회 순창장류축제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불나불 축제 등을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사업 적극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본격 대응을 통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추진과 더불어 현장 행정 중심의 민원 처리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감동 행정에 대한 업무 지시도 함께 이루어졌다.

최영일 군수는 "민선 8기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지역민들의 삶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면서, "2025년도에도 한발 더 나아가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명판 제막식

임실군이 지난 13일 군청 1층에서 심민 군수와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명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제막식은 임실군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것을 기념하고, 2025년에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자 갖게 됐다.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 명판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임실군과 공무원노조는 상생·화합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상시적인 대화 창구 운영, 청년 조합원 정책으로 '가치 있게, 같이 갑시다.' 프로젝트 운영,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 조합원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관내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로나 시기부터 매년 임실사랑상품권을 구매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국립임실호국원 연구고 묘소 자



원봉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봉사, 농촌일손 돕기, 애향장학금 기탁 등 군민과 더불어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다.

이번 제막식에 이어 임실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포상금 1백만원을 애향장학금으로 기탁 하기도 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산업 등 11개 분야 59개 사업 홈페이지 통해 안내

남원시는 시민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5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 홈페이지(www.namwon.go.kr)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세·부동산, 경제·산업 등 11개 분야 5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제·부동산 1건, △경제·산업 6건, △문화·관광 2건, △교육·체육·복지 14건, △노인·장애인 4건, △아동·청년 10건, △재난·안전 1건, △농촌·농업 9건, △귀촌·귀환 2건, △환경 2건, △외국인·다문화 8건이다.



대상포진과 폐렴 예방접종 대상 주민등록상 연령이 하향되었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남원형 청년희망박람회 신설 운영되고,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이 기존 월세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매매, 신축 용도의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행복누리센터가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갖춰 운영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추가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5개 항목 보장금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이 지원된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오는 4월에는 물인터넷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구 달빛정원)'이 개관 예정이며, 스포츠장과 이용권이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과 등록사실이 확대 시행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절차가 완화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인당 25회 시술비 지원에서 출산당 25회 지원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긴급 구조 및 도움 등을 위한 '남원 복지안전 119' 앱이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보급되었으며,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신설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설 명절 맞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남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5일부터 여객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남원시, 남원소방서, 안전관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귀성객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5개소를 중

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건축)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누수, 내·외부 마감 상태 △(전기) 분전반 주위 인화물질 적재, 접지 상태, 규격 전선 사용 여부 △(가스)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소방) 소화기 작동 여부,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주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남원소방서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용유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K급 소화기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가정 등의 주방마다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용유는 상온에서는 위험성이 적으나 가열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화재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부으면 폭발음을 내며 불이 붙은 기름이 튀어 오르며 물이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의 기름으로 인한 화재 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유막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며 재발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조리 중 기름으로 인해 발생한 불은 발화점이 높아 일반 소화기를 이용할 시 불길이 잡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사그라들었다가 재발화돼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한파 대비 소방시설 유지·관리 당부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소방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관계자들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에는 크고 작은 소방시설의 동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실패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크다.

특히 물을 사용해 진압하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은 동파에 매우 취약하며, 경보 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또한 낮은 기온에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소방시설 관리 방법은 △옥내 소화전·스프링클러 배관 보온 조치 △지상층 소방펌프실 보온 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정기적인 작동 점검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발견 시 즉시 수리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